

무안군 내년 도민체전 준비 비상

본 경기장 스탠드·육상·공도장 착공조차 못해

5개월여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없어

내년 4월 무안에서 열리는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준비가 미흡해 비상이 걸렸다. 본 경기장 스탠드 설치사업, 육상보조 트랙·공도장 조성사업 등 기반시설은 물론 대회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9일부터 열고 있는 제21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최옥련 의원은 정례회에서 대회 개

최일이 5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대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점을 개를었다.

최 의원은 “본 경기장 스탠드 설치사업, 육상보조 트랙 조성공사, 공도장 조성사업 등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도민체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시일을 재촉해 부실 공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이 늦어지면서 군은 오는 26일 열리는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이들 기반시설 공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이에 대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축구보조경기장, 공도장, 테니스, 정구장, 야구장 등 9개 시설공사가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군은 내년 1월 현장 점검을 통해 3월까지의 경기장 승인 규정에 적법하게 개보수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의 임원·선수 약 6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숙박업소 부족 등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군은 이번 대회를 위해 체전 운영비 22억원, 체육시설 정비 51억원 등 73

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22개 시·군 선수와 임원, 관광객 등이 지출하는 비용도 6억원에 달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또 체전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1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에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안 관내 숙박업소 99곳에서 3000여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목포, 나주, 영암, 함평, 영광, 신안 등 인근 시·군에서 숙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내년 4월29일부터 4일간 22개 시·군의 임원·선수 6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등 합동

‘남도의 풍류’ 송년 공연

오늘 진도 향토문화회관

국립남도국악원, 전남도립국악단,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이 합동으로 진도군에서 ‘남도의 풍류’ 송년 합동공연을 개최한다.

진도군은 10일 “11일 오후 7시에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진도 씨김국, 진도북놀이, 오고무, 육자배기, 판페라 ‘이순신’ 등 노래와, 춤, 가락이 어우러지는 전통 민속예술 공연‘남도의 풍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적 민요인 남도민요 육자배기와 진도지방의 전통 가무악인 진도 씨김국, 양순에 복제를 들고 다양한 장단과 춤사위로 흥을 돋는 진도 북놀이는 물론 정유재란 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그린 판페라 ‘이순신’이 개최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전북

단 신

고창군, 투자유치 행정서비스 1위

산업통상부 만족도 조사…전국 郡단위 중 최고

투자기업 윈스톱 지원시스템·인센티브 등 효과

고창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 발표한 지자체 투자유치 행정서비스에 대한 투자기업의 만족도 조사결과 김천시, 속초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군 단위에서는 1위다.

고창군은 지역경제의 자양분이 될 기업유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투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자립도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기업에 대한 윈스톱 기업지원시스템 운영, 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 일자리 상담센터 운

가 펼친 투자유치 행정서비스에 대해 기업이 느낀 만족도 조사 평가결과 김천시, 속초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군 단위에서는 1위다.

고창군은 지역경제의 자양분이 될 기업유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투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자립도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기업에 대한 윈스톱 기업지원시스템 운영, 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 일자리 상담센터 운

영과 취업 장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인력지원 등의 대책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내년 3월 준공예정인 고창일반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 지원제도 확대, 전북대 고창캠퍼스 유치,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으로 전문인력 양성 등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최상의 투자유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수 군수는 “2년 연속 전국 투자기업 만족 지역 선정이라는 쾌거를 바탕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와 북분자특화 농공단지가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전주 도시재생거점센터 짓는다

시, 옛 도심 활성화 차원 90억 들여 노송동에

낙후한 전북 전주 옛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거점센터가 들어선다.

전주시는 총 90억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4층 규모의 도시재생거점센터를 노송동 천사마을에 짓기로 하고 10일 송하진 시장, 이명연 시장의,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열었다.

이 센터는 옛 도심을 경제·문화·환경적으로 재생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문화를 보존·활용

하는 한편 원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거점센터에는 마을기업, 순환형 임대주택 등이 입주하고 세미나실 등을 갖춰 이 지역의 사랑방 기능도 한다.

송하진 시장은 착공식에서 “이 센터는 철거형의 정비 방식이 아닌 지역이 가진 자산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창의적 노력이 더해져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통합적 도시재생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농기센터 농업인대학운영 최우수기관상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는 지난 5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13 농업인교육분야 평가회에서 2013년 농업인대학운영 최우수기관상(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남원명품농업대학은 1년 과정으로 매주 1차례에 걸쳐 전문농업이론과

현장 중심의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생약초, 조경수, 마케팅등 11개 과정 42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졸업식은 오는 12일 오후 4개학과 졸업생 192명이 배출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순창군 복분자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전력

순창군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복분자, 양파, 포도, 복숭아, 양파 등 5개 품목과 단동 및 연동하우스 농업시설물을 비롯한 파프리카, 상추, 풋고추, 오이, 호박, 토마토 등 14개 시설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해당

된다. 해당농가는 오는 13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복분자 25개 농가, 버 30개 농가, 콩 46개 농가 등 총 122개 농가(총 가입면적 150ha)로, 전년도 46개 농가(가입면적 58ha) 대비 2.5배 이상 늘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55억 투입 용배수로 등 농업시설 정비

정읍시는 10일 “올해에만 총 108억원을 투자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였으며 재해 우려가 있는 소류지 및 용배수로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총 55억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45억원을 투입

해 73개 지구(연장 40km) 농로와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했고, 10억원을 들여 28개 지구 용배수로를 정비했다.

또한 덕천 금계마을 등 87개소에 23억원을 투자해 마을안길 포장과 체육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페이퍼, 친환경 폐수처리 발전시설 공장 완공

(주)전주페이퍼(대표 주우식)는 친환경 폐수처리 발전시설을 전주공장에 완공, 10일 김영 전북도 정부지사와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다.

총 200억원을 들인 이 친환경 발전시설은 폐수처리 과정에서 미생물을 활용, 하루 2만4000㎡의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이를 연료로 발전기를 가동해 2.8 MW의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다.

이는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전주페이퍼는 기존 발전설비와 함께 2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게 됐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해남군 문내 예락 시설하우스에서 아낙네들이 10일 이른 아침부터 세발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농가 고소득 안겨주는 해남 세발나물 수확 한창

10일 해남군 문내 예락 시설하우스에서 아낙네들이 이른 아침부터 세발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푸른 채소가 흔치 않은 겨울, 비타민 공급원으로 인기를 끄는 세발나물은 내년 4월까지 수확한다.

해남지역 재배 면적은 노지 7ha, 시설하우스 12ha로 연간 730t을 생산해 13억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재배농가가 작목반을 구성, 친환경으로 재배해 품질이 고르고 외관이 깨끗해 수도권 시장 70%를 점유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에서 전국 생산량의 60%가 생산된다.

가격은 4kg 1상자 도매가가 6000~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0%까지 하락했으나 이달 중순 이후 날씨가 추워지면 2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사랑의 땀감’ 나눠줍니다

트럭 40대(총 100t)를 이날 지역 영세민에게 전달했다.

정읍산림조합(조합장 김민형)은 지난 7일 숲 가꾸기 현장에 방치된 잡목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땀감’을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했다. 직원들과 영림단이 올해 숲가꾸기 단지와 조림 예정지에서 나온 나무를 톱들이 모은 1t

/정읍=박기섭기자 parkks@